

초·중·고 사교육비 감소 추세 광주·전남·북은 되레 늘었다

교과부 조사, 광주 1.9 전남 3.1 전북 4.5% 상승

전반적인 사교육비 하향 추세에도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15일 전국 1012개 초·중·고 학부모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전년 21조6000억원에 비해 7541억원(3.5%) 감소했다. 2000년대 사교육비 증감 조사가 본격화된 이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6485억원으로 전년비 0.3%, 전남(5443억원)은 0.5% 감소했다. 전북(5485억원)은 1.4% 상승했다.

그러나 광주, 전남지역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21만 3000원, 16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 3.1% 증가, 사교육비가 오른 전국 8개 지역에 포함됐다. 전북(16만4000원·4.5%)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이 뒤를 이었다.

광주의 경우 학교별로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23만4000원)가 전년비 1.7%, 중학교(23만6000원) 3.5%, 고교(15만2000원)는 0.7% 상승했다.

전남의 경우 초등학교(17만5000원)는 전년비 7.4% 상승한 반면 중학교(20만7000원)는 0.5%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11만6000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전북에서는 초등학교(15만9000원)가 1.3%, 중학교(20만원) 9.3%, 고교(13만5000원)가 6.3% 증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교육비 총 규모가 줄고 참여율이 떨어졌음에도 평균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

구분	경북	충남	경남	서울	울산	인천	대구	강원	충북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제주	전남	전북
'09	19.7	18.7	21.3	33.1	23.4	22.1	25.1	18.4	17.3	26.9	23.4	20.9	20.3	18.1	16.3	15.7
'10	18.7	17.8	20.4	32.1	23.1	22.0	25.0	18.4	17.4	27.1	23.8	21.3	20.8	18.6	16.8	16.4
증감률	▼5.1	▼4.8	▼4.2	▼3.0	▼1.3	▼0.5	▼0.4	-	▲0.6	▲0.7	▲1.7	▲1.9	▲2.5	▲2.8	▲3.1	▲4.5

(단위:만원, %, ▲증가 ▼감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광주에 분원 등을 잇따라 개설한 수도권 기업형 학원의 영향 때문으로 추정했다. 총 사교육비가 준 데는 학생수 감소의 영향도 컸다.

전남의 경우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촌 학생수가 급감한 데 비해 도시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그대로 유지돼 전반적으로 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사교육비 지출 순위에서는 서울(32만1000원), 경기(27만1000원), 대구(25만원) 지역이 1,2,3위를 기록했

다. 광주는 7위, 전남은 15위, 전북은 16위였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사교육 참여율도 하락했다. 광주는 2009년 75.9%이던 것이 지난해 74.5%로, 전남은 67.7%에서 65.9%로 각각 1.4%포인트, 1.8%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공교육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내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오는 3월 학원 교습시간 단축조례의 시행과 맞물려 수강비 편법 인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세 상인 울리는 ‘소셜커머스’

“홍보 효과 유혹에 단골마저 잃었다”

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소셜커머스 판매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서 한 카페를 운영중인 김모(31)씨는 ‘소셜커머스’라는 말에 고개부터 저었다.

소셜커머스는 중개 회사와 오프라인 업소가 계약을 맺고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등을 공동 판매한 뒤 저렴한 가격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판매방식.

김씨는 최근 유명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1만1000원 상당의 와플과 커피세트 상품을 5000원에 판매했다. 이날 하루 판매한 쿠폰만 430여장이었다.

정상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소셜커머스 업체에 매출 커미션만 30%. 적자가 눈에 뵈는 가격이지만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씨에게 ‘홍보 효과’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김씨는 “인터넷 광고는 너무

비싼데다 전단지 외에 마땅한 홍보 방안이 없다 보니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홍보도 해볼 겸 절반값에 판매를 하게 됐다”며 “그러나 해보고 나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이유는 2가지였다. 업주들이 기대했던 대로 소비자들이 쌀값에 이용한 후 다시 그 업소를 찾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소셜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전국망을 가진 업체를 포함, 광주 지역에만 소셜커머스에 뛰어들어 업체가 10여 곳으로 늘어났고,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제공하는 싼 가격만 찾는 ‘뜨내기’손님이 될 뿐이었다. 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가격에 쿠폰을 산 소비자들이 가게에 밀려들다 보니 혼잡해진 업소 분위기에 정작 있던 단골손님도 빠져 나가고 말았다.

결국 김씨는 홍보효과보다 더 큰 영업적자만 겪안은 셈이었다.

한편, 소셜커머스를 통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률기자 exian@

나원침 (8245) 김장두



리모델링 공사 뇌물수수

농어촌공사 팀장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15일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팀장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준 설계원의 납품업자 박모(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김씨의 지사로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차장 김모(42)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전담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팀장 김씨는 지난해 7월께 영산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설계업자들로부터 총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문화재를 지켜라” 실전같은 소방훈련

담양군과 담양소방서 관계자들이 15일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아 명승 40호로 지정된 소재원에서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한 실전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집무실서만 9차례 9천만원 받아”

검찰, ‘합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기소

‘합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여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씨에게서 건설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

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집무실에서만 유씨에게서 9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건네받았으며 나머지 금품 수수 장소도 대부분 경찰청 인근의 커피숍 등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유씨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을뿐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환뉴스

파출소 민원인 순찰차에 치여 부상

경찰 안전 수칙 안 지켜

파출소를 찾았던 40대 민원인이 경찰관의 실수로 순찰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정께 서부서 화정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이 파출소 소속 정모(43)경사가 운전하던 순찰차의 조수석 뒤편 문에 민원인 이모(42·나주시 노안면)씨가 가슴을 부딪혀 인근 병원에

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가슴 부위 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날 이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

같다”며 화정파출소를 찾아왔다. 이후 정 경사와 이모(29) 순경은 이씨를 순찰차에 태워 사실 확인하기 위해 문제의 술집으로 가려고 파출소 앞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준 뒤 이씨가 순찰차에 탑승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조수석 뒤편 문이 열린 상태로 후진을 해 차량에 타기 위해 서 있던 이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나자 광주지방법경찰청은 이날 광주지역 5개 경찰서 및 지구대와 파출소에 업무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의처증’ 아내 등 살해 60대 징역 18년

광주지법 중형 선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다 아내와 이웃집 남성의 아들을 잇따라 살해한 60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5일 아내와 이웃집 초등학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모(60)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불륜 상대로 의심해 온 이웃집 남성의 어린 아들까지 무참히 살해한 데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려고 이웃집으로 갔다가 혼자 있던 A(11)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내 살해 안방에 12년 숨겨

서울 용산경찰 50대 검거 ... 비닐로 밀봉 박스에 담아

12년 전에 숨진 50대 여성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 이모(51)씨를 경기도 부천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6월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신의 집에서 이사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 부인 윤모(살해 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씨는 숨진 부인의 시신을 가로·세로 50cm, 높이 1m 크기의 종이 상자에 담고 흰색 비닐로 10겹 이상 물러싸 밀봉하고는 이삿집인 것처럼 가장해 다음날 용산구 후암동의 집으로 옮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압송되고나서 시신을 12년간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죽은 부인과 딸에게 미안해서 시신을 가지고 있었다. 영원히 시신을 보관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연환뉴스

시내버스에 까나리액젓 뿌려

완산경찰, 노조원 2명 입건

전주 완산경찰은 15일 전주 시내버스 파업 도중 대체버스 시트를 찢고 까나리액젓을 뿌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심모(43)씨 등 전북 고속 운전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30분께 전주 시내버스 시외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서 대체버스에 탄 뒤 까나리액젓을 뿌려 악취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내연남 집 들어가 2억 통장 ‘슬쩍’

○내연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억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훔친 4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문모(여·43)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5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박모(43)씨의 집에서 총 2억원이 예금돼있던 통장 5매와 인감도장 1개를 가져간 혐의.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박씨와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연인처럼 지내오다가 최근 박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니고 있던 복제 열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강
매
일